

# 페퍼스 박정아, 친정팀 상대 홈 개막전 승리 이끌까



AI페퍼스가 복잡한 인연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홈 개막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19일 오후 7시 광주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도드람 2023-2024 V리그 첫 홈 경기를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 치른다.

페퍼스의 주포 박정아는 지난 시즌 우승을 이끈 '친정' 도로공사와 전면전을 펼친다.

페퍼스는 도로공사와 악연이 깊다. 지난해 자유계약(FA)을 통해 박정아를 영입한 페퍼스는 보호선수 지정 실수로 내보낸 주전 세터 이고은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큰 대가를 치렀다.

이고은을 데려오면서 도로공사에 미들 블로커 최가은을 뺐고, 신인 선발 1라운드 지명권을 헌납하며 '최대어' 김세빈을 놓친 결과를 낳았다.

올해 페퍼스의 정규리그 첫 경기이자 V리그 데뷔전에서 쓴맛을 본 조 트린지 감독은 안방에서의

오늘 광주서 도로공사와 첫 경기 현대건설전 몸 털 풀렸던 박정아 안방서 승리 선물할지 관심 집중

첫 승리 간절하다.

페퍼스는 박정아-야스민 '쌍포'와 리베로 오지영 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지난 15일 치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시즌 첫 경기에서 1-3으로 졌다.

트린지 감독은 '스마트(전략) 배구'와 '빠른 배구'를 내걸었지만 시즌 첫 경기에서 팀 공격 효율이 11.2%에 그치고 블로킹도 7-12로 밀리는 등 전술 이다소 설악은 모습을 보였다.

박정아도 몸이 털 풀린 모습이였다. 박정아의 리시브 효율은 15%를 간신히 넘겼고, 9득점을 할 동안 5개의 범실을 내면서 공격 성공률이 33.33%에 머물렀다.

박정아는 시즌 개막 직전까지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뛰며 파리올림픽 예선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강

행군을 했다.

그만큼 트린지 감독과 호흡도 짰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 14일 흥국생명 핑크스파 이더스와 치른 홈 개막전에서 완패를 당했다. 박정아의 이적과 주전 세터 이윤정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컸다.

이윤정은 페퍼스와 경기에서도 출전하기 어려운 전망으로, 도로공사는 '2년 차' 박은지만을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

'유망주' 박은지는 첫 경기에서 수준급 서브(세트당 0.67)를 보이면서 좋은 출발을 했다.

이번 경기는 친정을 상대하는 박정아의 활약과 박은지의 연년생 언니인 페퍼스의 아웃사이드 히터 박은서와의 '자매 대결'이라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있다.

한편 페퍼스는 올해 홈구장 관객석을 전년보다 1300석(52%) 늘린 3800석으로 운영한다. 홈 개막전은 18일 오후 6시 현재 31.6%(1200명) 예매율을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정아가 지난 15일 현대건설전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 '돌풍'의 광주FC '소란'은 계속된다

K리그1 파이널A 앞두고 미디어 데이

21일 1위 울산 상대 첫 경기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 목표 이정효 감독 "계속 시끄럽게 할 것"

요란했던 광주FC의 2023시즌이 더 뜨거워진다. 파이널라운드 일정을 앞둔 광주FC 이정효 감독은 "파이널A에서도 시끄럽게 하고 싶다. 우리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 지 조금 더 떠들어봐야 알 것 같다"고 남은 5경기를 이야기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3 파이널라운드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정규리그에서 6위 안에 든 파이널A 6개 팀 사령탑과 대표선수가 참가해 21일 시작되는 파이널라운드 각오와 목표를 밝혔다.

광주에서는 이정효 감독과 주장 안영규가 참석해 '기싸움'을 벌였다.

'우리의 향상심은 늘 증명한다'라는 슬러건을 내세운 광주는 정규리그에서 보여줬던 돌풍을 이어 가장 시끄러운 팀이 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정효 감독은 "팀도 선수들도 나도 많이 성장했다. 여기에 조용히 올라오지 않았다. 시끄럽고 야단스럽게 올라왔다. 파이널A에서도 시끄럽게 하고 싶다"며 "우리팀이 어디까지 올라갈 지 조금 더 떠들어봐야 알 것 같다. 매 경기 시끄럽게 하겠다. 경기장에 오신 팬분들이 더 즐겁고 시끄럽게 응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안영규도 "파이널A 진출한 것이 기쁘지만 여기에 만족이 안 된다. 향상심이라는 말처럼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모습과 경기력으로 감동을 드리겠다. 5경기에 모든 걸 쏟아 붓겠다. 울산전부터 모든 걸 쏟아 부어 좋은 분위기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요란했던 시즌답게 광주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 발레리우 수석코치는 "광주가 까다롭다. 세 번 만났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까다로웠다. 광주가 3위에 랭크됐고, 전북이 4위인 만큼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잡아야 할 팀이다"고 광주를 이야기했다.

인천의 '캡틴' 오반석도 "올 시즌 한번도 이기지 못한 광주와 전북을 넘어야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와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18일 서울 용산 한 호텔에서 열린 K리그1 파이널라운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광주FC 이정효 감독과 안영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게 팬 분들이 원하는 것이어서 두 팀을 넘어 보고 싶다"고 광주를 의지를 다졌다.

이정효 감독은 "대구"를 경계 상대로 꼽았다. 이정효 감독은 "대구가 가장 신경 쓰인다. 원정 경기이고, 대구가 우리와 정반대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홈에서 두 번 졌다. 대구 경기를 잘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구 최원권 감독은 "이정효 감독님이 내가 나이가 어려서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같다(웃음). 상성상 광주가 까다로워하는 것 같은데 광주 뿐만 아니라 모든 팀이 버겁고 벅하다. 걱정이 되지만 잘 준비하겠다. 광주가 좋은 축구하지만 아시아챔피언스리그를 가야 하니까 잘 막고 이기겠다"고 밝혔다.

대구를 대표하는 베테랑 이근호도 "광주 축구를 보면서 보고 느끼는 게 많다. 좋은 축구를 한다고 느낀다. 우리는 팀 컬러에 맞는 상대가 까다롭게 생각하는 축구를 잘하고 있다"며 "올 시즌 끝을 못 넣을 줄 알았는데 첫 골을 넣게 해준 팀이 광주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광주와의 경기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근호의 선전포고에 안영규는 철벽 수비를 언급했다. 안영규는 "우리만의 색으로 준비 잘해서 잘 상대하려고 한다. 대구 원정가서 한 번 이겼고, 홈에서 두 번 졌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구 원정가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근호 형이 골 못 넣도록 잘 막겠다"고 맞불을 냈다.

광주에는 시작도 중요하다. 광주는 첫 판에서 '1위' 울산을 만나게 된다.

울산 홍보보 감독은 "우리 팀이 어려운 점이 A 매치 기간 선수들이 많이 빠졌다가 경기 하루 이틀 전에 복귀해서 나가야 하는 점이다. 이번에도 어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복귀해서 광주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광주의 전체적인 것이 좋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한다. 특히 원정 경기이니 선수들의 컨디션 세밀하게 관찰해서 선발 명단을 꾸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21일 오후 2시 울산과의 경기를 통해 파이널라운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28일 인천과의 홈경기를 치른 뒤 11월 11일 대구, 11월 25일 전북과 원정경기를 갖는다. 12월 3일 최종전에서는 포항과 안방에서 대결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태너 vs 광빈 선발 맞대결

프로야구 PO 오늘 시작...NC-두산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2023시즌 KBO리그 포스트시즌이 19일 시작된다.

지난 4월 1일 막을 올렸던 KBO리그 정규 일정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날 결과에 따라 마지막까지 순위 싸움을 했던 SSG는 3위를 확정했다. NC 다이노스는 16·17일 연달아 KIA 타이거즈에 덜미를 잡히면서 4위로 시즌을 마감, 5위 두산 베어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됐다.

19일 창원NC파크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열린다.

안방에서 1승을 안고 경기에 나서는 NC는 좌완 태너를 선발로 내세운다.

태너는 지난 8월 테일러 와일드너(현 삼성)의 대체 선수로 NC에 합류했고, 11경기에서 64.2이닝을 소화하면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2.92의 활약을 펼쳤다.

두산전에서는 한 차례 나와 6이닝 7피안타 4탈삼진 3실점(1자책)의 호투로 승리를 거뒀다.

1차전 승리 뒤 2차전까지 이겨야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차지하는 두산은 국내 에이스 광빈을 선발로 예고했다.

광빈은 올 시즌 23경기에 나와 127.1이닝을 소화하면서 2.90의 평균자책점으로 12승 7패를 기록했다. 특히 '호랑이 천작'으로 활약하면서 KIA에 4승을 챙겼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답 증세로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했지만 지난 13일 사실상 '5위 결정전'으로 치러진 KIA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다.

올 시즌 NC를 상대로는 3경기에 나와 14.2이닝을 던지면서 12피안타(2홈런) 5실점, 평균자책점 3.07로 승리 없이 1패만 기록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막이 오르는 포스트 시즌은 22일 준플레이오프 일정으로 이어진다. 7전 4선승제로 진행되는 한국시리즈는 11월 7일 시작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좌완 듀오' 윤영철·최지민 신인왕 후보에

KBO, MVP·신인왕 후보 발표

KIA 타이거즈의 '좌완 듀오' 윤영철과 최지민이 신인왕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KBO가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MVP와 신인왕 후보를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한국야구기자협회와 함께 후보를 선정한 KBO는 와일드카드 1차전 개최에 앞서 투표를 진행한다. 다득표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선수가 수상자가 된다.

KIA 윤영철·최지민, LG 유영찬, 두산 김동주, 한화 문동주 등 투수 5명과 키움 김동현·이주형, 롯데 김민석·윤동희, 한화 문현빈 등 야수 5명이 신인왕을 놓고 대결한다.

신인왕 후보는 KBO 표창규정 제7조에 따라 2023년 입단한 선수 및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 이내 입단 선수 중 누적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을 넘지 않는 모든 선수(해외 프로야구 기구로 소속되었던 선수는 제외) 중에서 선정됐다.

총암고를 졸업한 '고졸 루키' 윤영철은 정교함을 앞세워 프로 첫 해 팀의 선발 자리를 꿰차면서 25경기에 나와 122.2이닝을 소화했다. KIA의 의

국인 투수 고민 속 꾸준하게 자리를 지킨 윤영철은 4.0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면서 8승 7패의 성적을 거뒀다.

강릉고 출신의 '2년 차' 최지민은 올 시즌 놀라운 구석 상승으로 팀의 필드조가 됐다. 58경기에서 59.1이닝을 소화한 최지민은 2.12의 평균자책점으로 6승 3패 12홀드 3세이브를 기록했다. 아시아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돼 한국의 대회 4연패에도 기여했다.

MVP 후보로는 리그 부문별 타이틀홀더 및 우수한 성적을 낸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20승·200타점'에 빛나는 NC 페디와 함께 SSG 서진용, 키움 후라도, KT 고영표·박영현·쿠에바스, 삼성 류캐년, 두산 알칸타라 등 투수는 8명이다.

야수로는 SSG 최정, 키움 김해성, LG 오스틴·홍창기, NC 손아섭, 삼성 구자욱, 두산 정수빈, 한화 노시환 등 8명이 후보가 됐다.

투표는 2023시즌 KBO 리그를 취재한 한국야구기자회 회원사와 각 지역 언론사 소속 취재기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인공은 포스트 시즌 종료 이후 KBO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30일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30일
- 2관 퍼피 구조대: 더 마이티 무비, 더 년 2
- 3관 익스펜더블 4,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 4관 엑소시스트: 믿는 자
- 5관 블루 자이언트
- 6관 30일
- 9관 플라워 킬링 문, 세이 에스 아게인
- 7관 싸대끼틀 환란
- 8관 싸대끼틀 환란, 1947 보스톤,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3-10-01(월) ~ 2023-10-29(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포커스 민아\*슬기 퀸텟 재즈 콘서트

일시 : 2023-11-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